

문화재청 공고 제2017-32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1건 및 지정명칭 변경 1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0. 27.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11건

연 번	문 화 재 명	수 량	소유자 (관리자)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1책	향운암
2	정선 필 해악전신첩(鄭敼 筆 海嶽傳神帖)	1첩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3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敼 筆 京郊名勝帖)	2첩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4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鄭敼 筆 楓嶽內山總覽圖)	1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5	정선 필 청풍계도(鄭敼 筆 淸風溪圖)	1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6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敼 筆 廬山草堂圖)	1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7	청자 음각환문 병(靑磁 陰刻環文 瓶)	1점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8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 (靑磁 陽刻饗饗文 鼎形香爐)	1점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9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靑道 湧泉寺 靈山會上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용천사)
10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靑道 大悲寺 靈山會上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 대비사(대비사)

11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醴泉 普門寺 三藏菩薩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보문사)
----	--------------------------------	----	---------------------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변경 : 1건

연번	지정 번호	문화재명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	보물 제575호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 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 如來說法像 및 關係文書)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 여래설법상 관계문서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 陀如來說法像 關係文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 제321호로 승격됨에 따라, 기 보물 지정된 관계문서에 대한 보완조치를 실시한 후 (‘17.9.8) 보물유지 결정. 명칭변경을 통해 지정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 소 유 자 : 향운암(香雲庵)
-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발한천로 43-68
- 수 량 : 1책
- 규 격 : 半郭 27.3×19.6(38.0×24.0)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70년(성종 1)
- 사 유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수륙무차평등재의 기원과 의식,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은 불교의 의례서로,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으로 바탕으로 세조비 정희왕후(1418-1483)가 세조·예종·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0년(성종 1) 왕실 주도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전적 중 성종연간(1479-1494)에 왕실과 사찰 등에서 간행된 것은 총22건이며 이중 향운암 소장 수재의궤의 간행연도인 1470년에 간행된 불서(佛書)는 3종이다. 향운암 소장본은 왕실이 주관하여 간행한 수륙재의 기본서이자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및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향운암 소장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도, 희소성·시기성·완전성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정선 필 해악전신첩(鄭敼 筆 海嶽傳神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해악전신첩(鄭敼 筆 海嶽傳神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점(38폭)
- 규 격 : 32.0x25.0cm, 42.0x30.0cm(화첩)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747년
- 사 유

정선 필 해악전신첩은 정선(鄭敼, 1676-1759) 특유의 다양한 필묵법과 옅은 청록색의 선염법이 고른 수준으로 능숙하게 구사되어 금강산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대표작이다. 정선이 72세 되는 1747년 만년에 그린 것으로 노년의 무르익은 필치가 집약되어 있어서 금강산 그림 중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총 38폭 중 산수화가 21폭, 나머지는 제목, 서문, 시문, 발문 등이다. 그림마다 당대의 명사인 김창흠(金昌翕, 1653-1722)과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장첩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발문까지 갖추어진 화첩으로서 완전성 면에서도 가치를 부여할만하다.

정선의 이른 시기 진경산수화풍을 보여주는 금강산 그림인 <풍악도첩>(1711년)이 보물 제1875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해악전신첩> 역시 정선 만년의 진경산수화풍을 대표하는 금강산 그림으로서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敼 筆 京郊名勝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敼 筆 京郊名勝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2첩(상권 20폭, 하권 22폭)
- 규 격 : 27.4x27.4cm(화면)
- 재 질 : 상권 비단 바탕에 담채, 하권 일부 종이 바탕에 담채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741-1759년

○ 사 유

정선 필 경교명승첩은 서울 근교와 한강변의 명승명소를 그린 진경산수화와 인물화로 구성된 정선의 그림이다. 1741년부터 그리기 시작해 정선이 사망한 1759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교명승첩>은 화풍적면에서 정선 그림의 특징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었다. 특히 한강변의 명승을 그린 진경산수도에는 밝고 산뜻한 녹색과 연두색으로 칠하여 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러한 청록 담채법(淡彩法)은 정선 화풍의 지평이 확대된 면모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정선 필 <경교명승첩>은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작연대와 장첩의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같이 장첩되어 있어 완전성 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지금은 훼손된 한강변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크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鄭敼 筆 楓嶽內山總覽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鄭敼 筆 楓嶽內山總覽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100.8×73.8cm(그림) 188.6×86.5cm(축자)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세기 전반
- 사 유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는 제작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필치와 화풍으로 보아 정선이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1740년대에 제작된 작품으로 생각된다.

<풍악내산총람도>는 녹색, 황색, 적색, 흰색 등 채색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가을의 내금강 전모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금강전도와 차별된다. 또한 중요 경물과 건축물 등의 이름을 기입했고 형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점은 다른 작가의 금강전도 중에서 내금강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재현했다고 볼 수 있다. 국보 제217호로 지정된 정선의 <금강전도(金剛全圖)>와 화풍이 다르지만 예술적인 가치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따라서 <풍악내산총람도>는 정선의 금강전도를 대표할만한 하며 회화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정선 필 청풍계도(鄭敼 筆 淸風溪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청풍계도(鄭敼 筆 淸風溪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133.0×58.8cm(그림), 239.8×75.6cm(족자)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39년(영조 15)
- 사 유

정선 필 청풍계도는 서울 백악산 청풍계에 있던 안동김씨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고택을 그린 것으로, 1739년에 그린 기년작이다. 짜임새 있는 구도와 조형감각,景物(景物)의 특징표현에 적합한 필묵법의 사용, 자신감 넘치는 농익은 필치의 구사, 약간의 채색이 전달하는 생동감의 부여 등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대표할만한 사례이다.

정선이 그린 청풍계도는 이외에도 고려대학교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청풍계도>가 적묵법(積墨法)을 적용한 정선의 개성적인 화풍을 가장 잘 보여주며, 대가로서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敼 筆 廬山草堂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敼 筆 廬山草堂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125.5×68.7cm
- 재 질 : 비단에 담채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세기
- 사 유

정선 필 여산초당도는 정선이 중국의 고사(故事)를 주제로 삼아 산수화와 인

물화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대작이다. 여산(廬山)은 중국의 수많은 문인들이 방문하여 작품을 남긴 곳이며 중국과 조선에서 그린 소재로 많이 다루어진 명소이다. 이 그림은 여산에 초당을 짓고 은거한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고사를 주제로 한 고사인물도이다.

남종화풍(南宗畫風)에 기반한 정선의 정형산수도를 대표할만한 작품으로, 자신이 진경산수화를 그릴 때 즐겨 사용한 개성적인 필묵법을 잘 절충하여 조선후기 정형산수도의 또 다른 경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더욱이 이를 수묵화가 아닌 채색화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희소적인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정선 필 <여산초당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 청자 음각환문 병(靑磁 陰刻環文 瓶)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자 음각환문 병(靑磁 陰刻環文 瓶)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22.0cm, 구경 7.2cm, 굽지름 8.0cm
- 재 질 : 청자(토도류)
- 형 식 : 어깨에 손잡이가 달린 금속기 형태의 청자호
- 조성연대 : 12세기
- 사 유

청자 음각환문 병은 고려 12세기 경 제작된 것으로, 두개의 귀가 달린 의례용 금속제 기물의 형상을 청자로 만든 것이다. 구연부, 몸체, 굽다리를 각각 만들어 접합하였으며 휘어진 목 부분, 튀어나온 돌대, 두 개의 손잡이, 벌어진 굽다리, 동체 상부의 작은 음각원문 등은 금속기를 충실하게 재현했음을 보여준다. 제작상태는 매우 정교하며 비색을 띠는 유색도 매우 단아하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청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존재 자체가 매우 희귀하며 보존상태 역시 대단히 좋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병은 당시 최상위 계층에 국한된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자 음각환문 병은 강진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분한 유색과 기형, 번조법 등에서 전형적인 12세기 고려청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금속기의 조형을 원형으로 청자로 번안한 고려전기 양식의 전형적인 청자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공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靑磁 陽刻鑿文 鼎形香爐)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靑磁 陽刻鑿文 鼎形香爐)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17.0cm, 구경 12.0cm, 다리길이 8.0cm
- 재 질 : 토도류
- 형 식 : 도철문양이 압출양각된 금속기 형태의 삼족향로
- 조성연대 : 12세기
- 사 유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는 12세기 경에 제작된 청자로 전체적으로 비색에 가까운 녹청색의 유조와 섬세한 문양이 특징인 작품이다. 구연 일부에 작은 파손의 흔적이 있고, 산화 번조되어 일부 갈색을 띠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모습은 구연부, 몸체, 굽다리를 각각 만들어 접합하였으며 휘어진 목 부분, 튀어나온 돌대, 두 개의 손잡이, 벌어진 굽다리, 동체 상부의 작은 음각원문 등은 금속기의 영향을 보여준다. 제작상태는 매우 정교하며 비색을 띠는 유색도 매우 단아하다.

이 같은 향로는 주로 강진지역의 가마터에서 발견되며 12-13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청자향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몇 점 있으나 이 향로는 세발 달린 정형향로(鼎形香爐)를 대표할 만하며, 유약과 태토 모두 절정기의 수작인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靑道 湧泉寺 靈山會上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靑道 湧泉寺 靈山會上圖)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각북면 혈티로 1357-9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361.5×294cm, 화면 339.5×283.0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49년(영조 25)
- 사 유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는 화면의 높이가 4미터에 가까운 대형급 후불탱화이다. 1749년(영조 25)에 조성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 경 용천사에서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되었다. 불화를 조성한 화승은 알 수 없으나, 화면 구성을 비롯하여 불보살상의 온화하고 단정한 얼굴과 신체의 형태, 가늘고 탄력 있는 묘사, 법의(法衣)에 장식된 섬세한 소형문양,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 위주의 차분한 색감 등으로 보아 17세기 중엽 기림사, 통도사, 석남사 등의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임한(任閑)의 화풍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수많은 권속들을 등장시켜 웅장한 영산회상의 장면을 짜임새 있는 구도와 세련된 필치로 잘 구현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靑道 大悲寺 靈山會上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靑道 大悲寺 靈山會上圖)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비사
-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길 590(박곡리 794)
- 수 량 : 1폭
- 규 격 : 407×311.7cm(전체), 336.2×293.6cm(화면)
-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686년(숙종 12)
- 제 작 자 : 해웅(海雄), 의균(義均), 호선(顥瑄), 상명(尙明)
- 사 유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는 1686년에 조성된 불화로, 1988년 12월 24일 대비사에서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 다시 회수된 작품이다. 부분적으로 박락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영산회 설법회에 등장한 다양한 도상, 본존을 비롯한 권속들의 짜임새 있는 구성, 안정된 화면구도, 단정하고 온화한 안면 묘사, 적·녹색 위주의 안정된 색채, 장식성이 강한 채운 표현 등을 통해 화격을 갖춘 주불전(대웅전)의 후불탱화라 할 수 있다.

화기(畵記)를 통해 수화승 해웅(海雄)을 비롯해 의균(義均), 호선(顥瑄), 상명비구(尙明比丘) 등 총 4인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17세기 후반 불화의 양식적 특징과 수화승 해웅의 작품양식, 그리고 팔공산 일대에서 활동한 의균 화파로의 전승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불화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크다.

□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醴泉 普門寺 三藏菩薩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醴泉 普門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보문면 보문사길 243
- 수 량 : 1폭
- 규 격 : 168×165cm
- 재 질 : 견본채색
- 조성연대 : 1767년(영조 43)
- 제작자 : 미상
- 사 유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는 1767년 조성된 불화로, 1989년 6월 5일 보문사에
서 도난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되었다. 인물의 묘사나 필선, 채색도 상호
조화를 이루며 격조 높은 화격(畫格)을 보여준다. 특히 삼장보살을 주제로
다른 그림 중에서 이와 같이 지장보살과 명부신앙 강조된 점도 전례가 없이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품(品)’자형의 화면구성을 통해 재관에서부터 지옥
형벌, 구원이라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열한 화면
의 구성력도 체계적이고 탁월하다. 이렇듯 이 불화는 우리나라 유일의 지장
과 명부신앙이 강조된 삼장보살도이자 뛰어난 화면 구성력을 가진 작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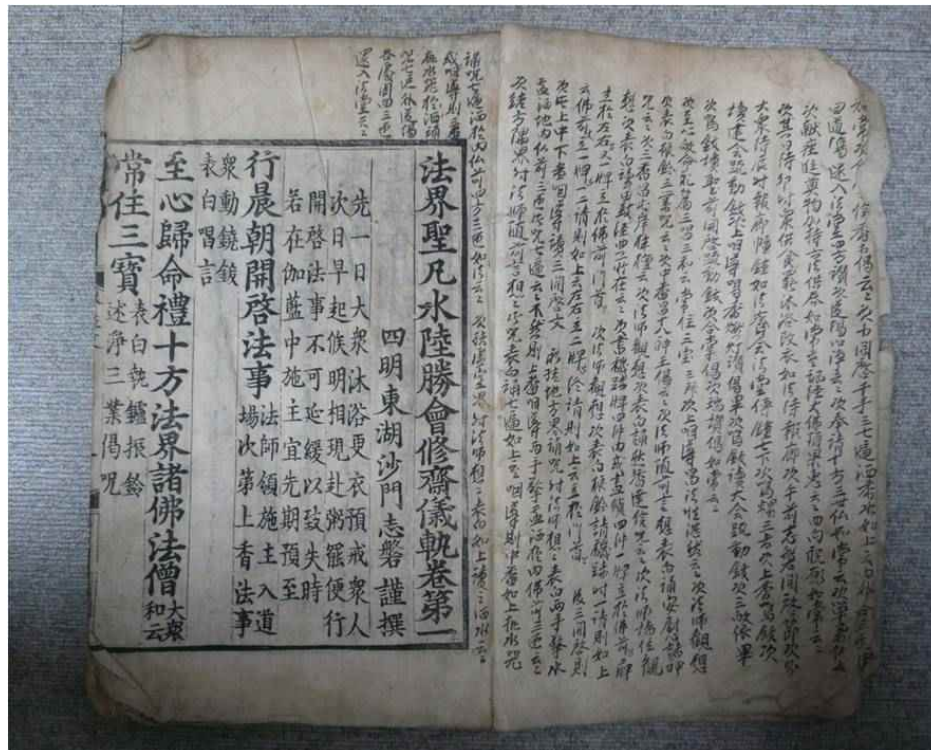


사진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사진2. 정선 필 해악전신첩(제17폭 금강전도)



사진3. 정선 필 경교명승첩(상권 제5폭 미호)



사진4. 정선 필 경교명승첩(하권 제11폭 인곡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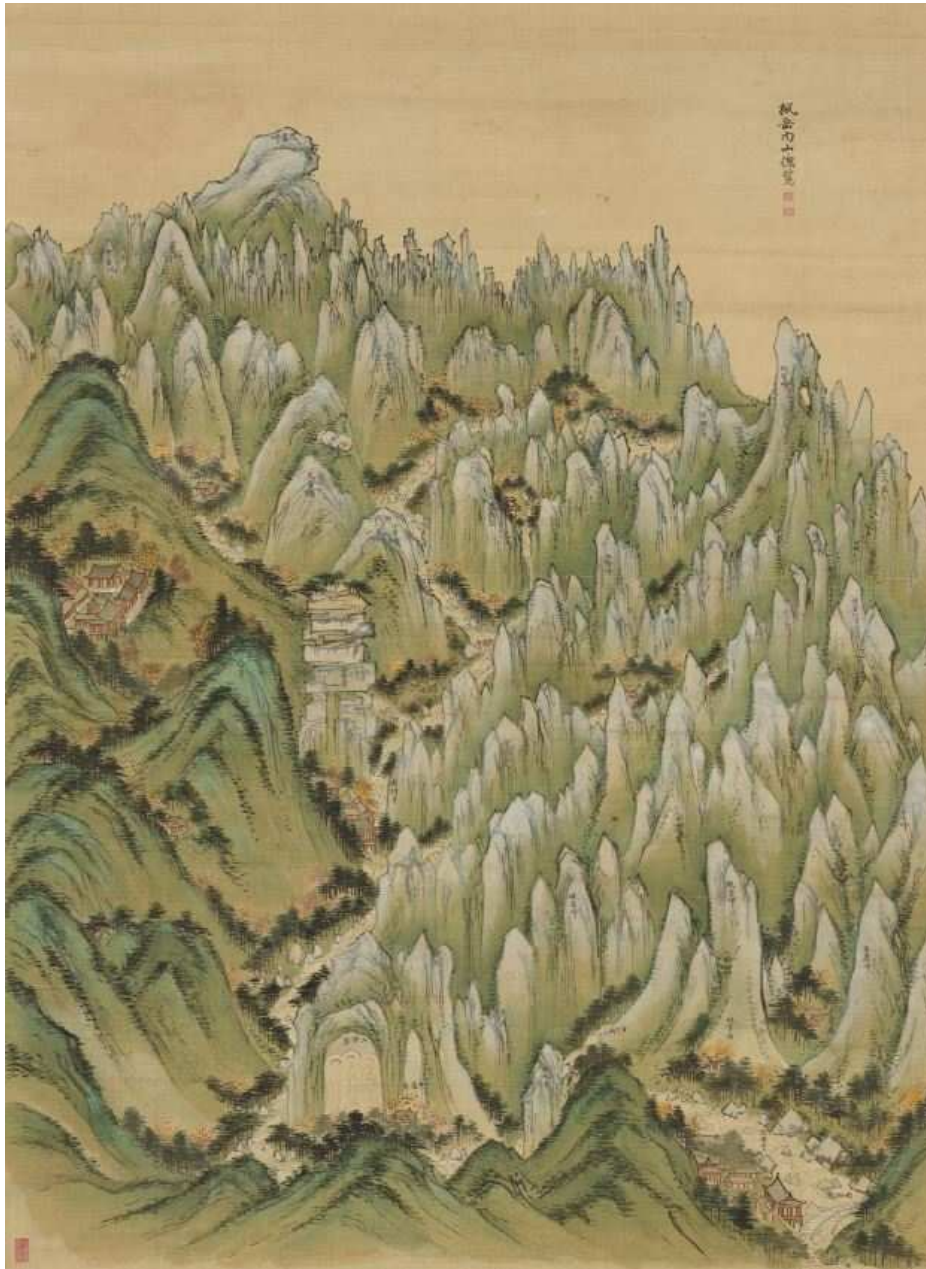


사진5.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사진6. 정선 필 청풍계도



사진7. 정선 필 여산초당도



사진8. 청자 음각환문 병



사진9.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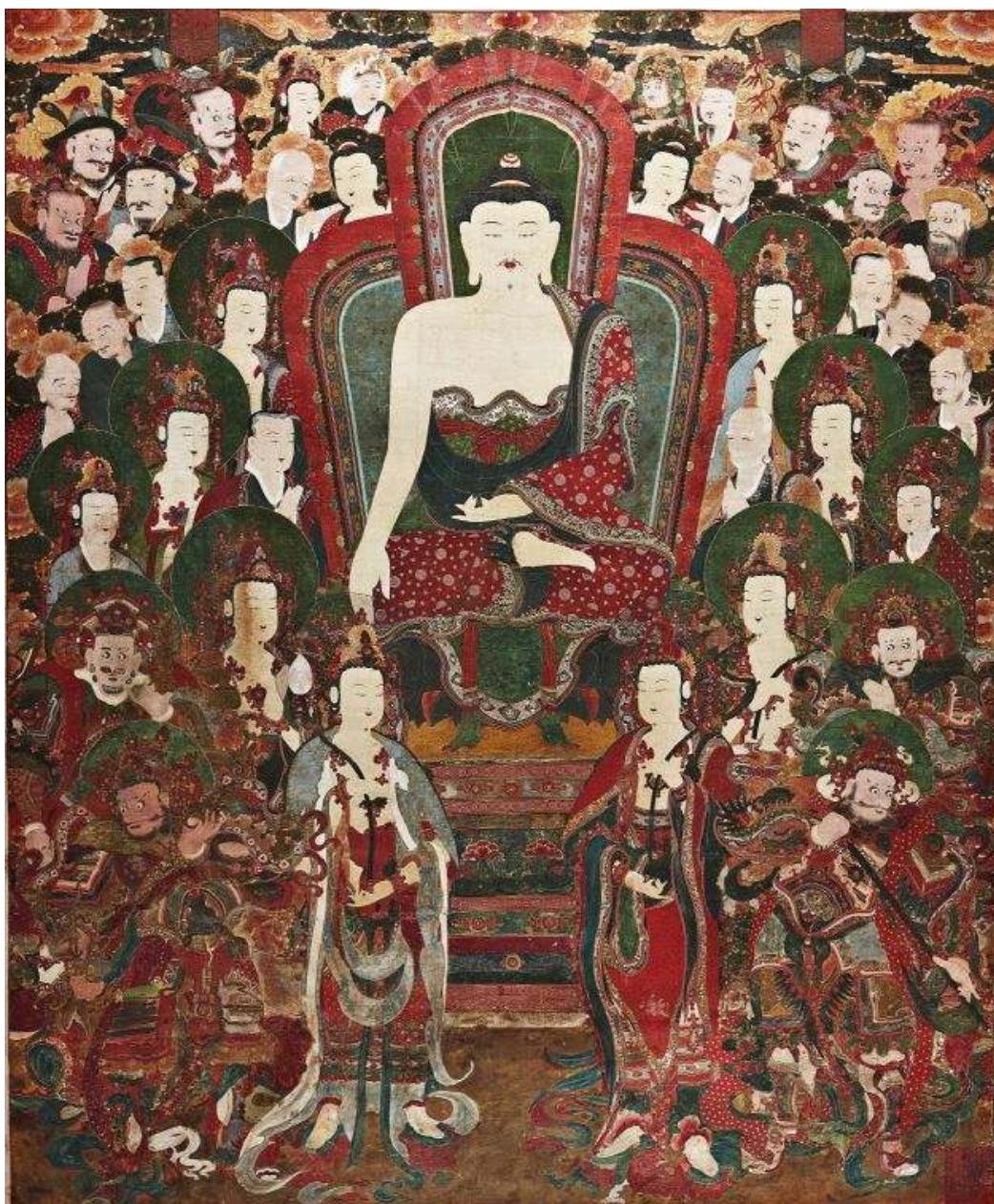


사진10.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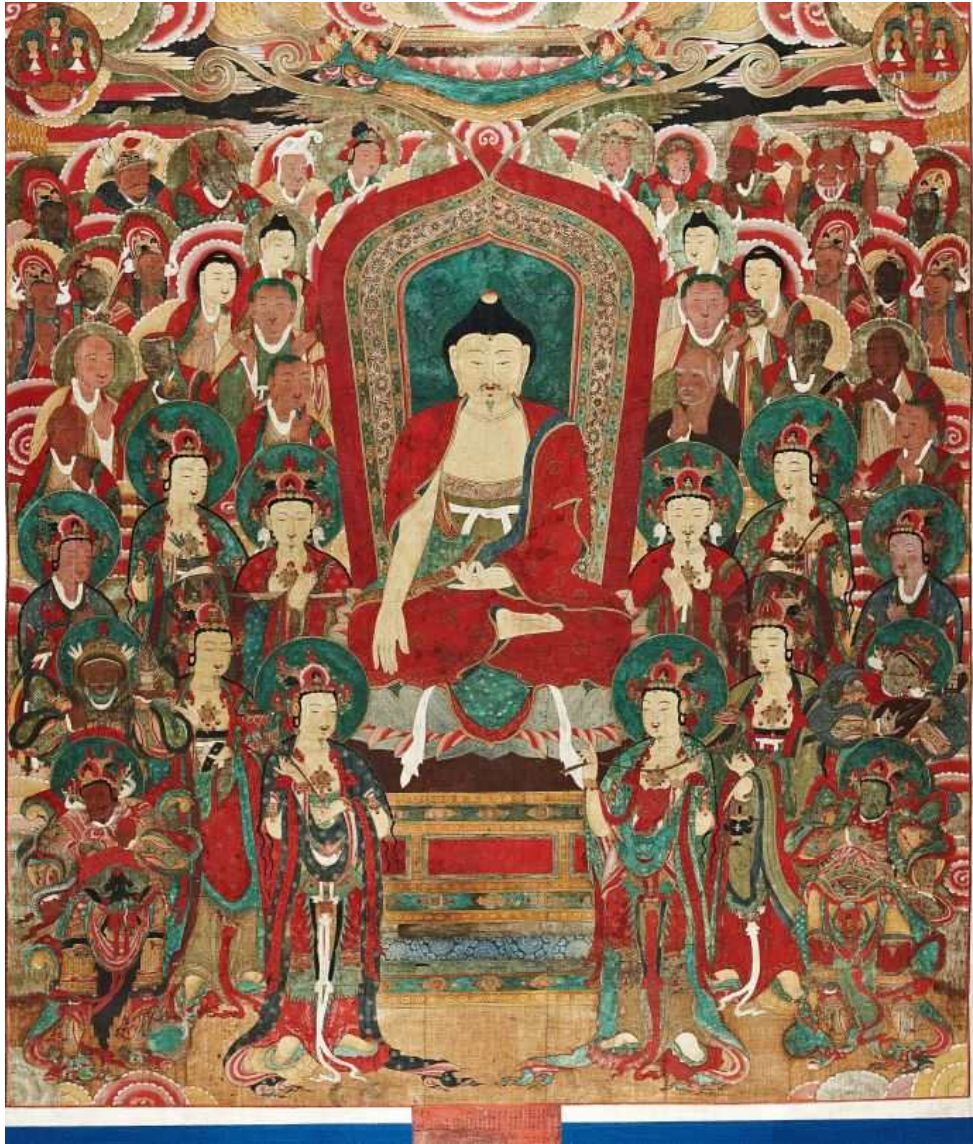


사진11.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사진12.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